

대불산단 기업들 영암 쌀 소비 나섰다

구내식당·기업행사 경품 걸기 20kg 1500포대 구매 실적 상생협약 따라 지역 농산물 구매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기업 구내식당에서 열린 대불산단 기업 영암 쌀 구매 기념식에서 우수회 영암군수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영암군과 대불공단 기업체가 영암 쌀 판매 운동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영암군과 대불공단 기업체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암 쌀 판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연말 영암군과 대불산단 경영자 협의회가 체결한 지역-기업상생협약에 따라 산단 내 기업에서 지역 살리기 목적으로 영암 농특산물 구매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 구내식당에서 지역 쌀 소비하기, 기업 행사 경품에 지역 쌀 이용하기 등 소비촉진 운동을 추진한 결과 영암쌀 1000포(20kg) 구매 실적을 달성해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기업 구내식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1000포 구매 달성 이후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서부지사, 영암군 지역 의원까지 합세해 국가산단 입주 기업 홍보와 기업 협력업체 영암 쌀 구매

홍보 등의 노력을 통해 거래처를 산단 외부까지 다각화한 결과 영암쌀 구매 실적 상승에 가속도가 붙어 9월 현재 기준 쌀 구매 1500포(20kg)를 달성 중이다.

이 같은 영암쌀 소비운동은 최근 쌀값 하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 사회의 상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과 대불공단 기업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힘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객에 음식점 할인쿠폰

이용 지역 면단위까지 확대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관외 이용객에게 음식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완도읍을 포함한 군외·신지·고금·약산면의 음식점까지 확대한다.

음식점 확대는 해양치유센터 이용객들이 센터와 가까운 지역에서 완도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벤트 쿠폰은 10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7월 13일부터 해양치유센터 이용객(군민 제외)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1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1차로 진행했다.

이용객 식비 부담을 덜어주고 음식점은 손님이 늘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1차 이벤트 기간 쿠폰을 받은 이용객을 보면 전남과 광주 1209명(60%), 서울 208명(10%), 경기 193명(9%)이었으며 강원과 제주 등 전 지역에



완도군이 제공하는 음식점 할인 쿠폰. 서 센터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완도군 관계자는 "센터 이용객들이 이벤트 쿠폰으로 특산물 구입까지 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 기념관 고향 해남에 개관

트로피·손편지·훈련일지 등 전시

해남군은 계곡면 법곡리에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를 기리는 조오련 기념관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기념관에는 조오련 선수가 독도 횡단 후 입었던 한복, 트로피와 훈장, 어머니 손편지, 서재의 책들과 사용했던 책상, 수영 훈련 일지 등을 전시해 그의 일대기와 도전 정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기리는 장소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조오련 선수는 지난 1952년 해남을 학동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 혈혈단신 서울로 상경해 각고의 노력 끝에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이후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 1500m에서 모두 아시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아시아의 물개'란 별칭을 얻었다.

특히 1980년에는 대한해협, 1982년에는 영국 도버해협, 2008년에는 독도 33바퀴 릴레이 횡단 프로젝트 등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스포츠를 통한 역사적의식의 고취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2009년 독도 재횡단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중 갑작스럽게 별세했으며, 2020년에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헌액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조오련 기념관이 국민 모두가 선생의 생전의 뜻을 잊지않고 기리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달 30일 열린 개관식에 박지원 국회의원과 명현관 해남군수, 이성욱 해남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지역주민, 체육계 동료 및 후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남군 제공>

목포해수청, 신안 '재원도 남방등표' 설치

해상 암초에... 이달부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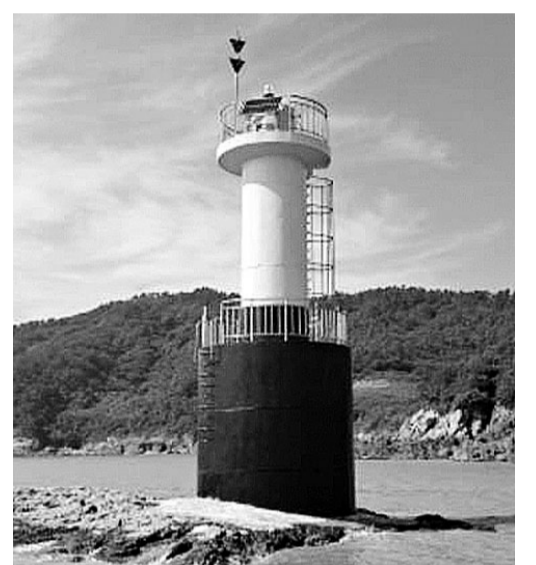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방 해상 암초에 '재원도 남방등표'를 신설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등표는 국비 4억여원을 투입해 직경 4.5m, 높이 11m 규모의 원형 콘크리트 시설물이다. 상부에는 9해리(약 15km) 밖에서도 식별이 가능한 불빛이 설치돼 통항하는 선박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재원도 남방 해상 암초는 농무나 기상악화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 재원도 주민들이 항로표지 설치를 요구한 장소이기도 하다.

등표 설치로 재원도 인근을 조업하는 어선을 비롯해 주변을 통항하는 선박들이 주야간 암초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어 선박 안전 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창승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앞으로도 통항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행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항로표지를 확충하



신안 임자면 재원도 남방등표. 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46가구 모집

목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46가구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씩 36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6억원 이하의 목포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중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다자녀가정(미성년자녀 2명 이상, 자녀중 1명은 만12세 이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분양권 포함) 소유자와 저소

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기존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 선정가구,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신청서와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목포시는 서류 및 소득수준 등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작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곤한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1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31129-중-63255호

동행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입원문의
062) **720-2000**